

CSA운동의 지역시민 참여방안과 유기농업 발전에 대한 설문조사

정진영*, 손상목**, 김영호**
한국유기농업협회*, 단국대학교 유기농업연구소**

<목 차>

- | | |
|----------------|----------------------------------|
| I. 서언 | III. 유기농업 발전을 위한 주민의식과 참여방안 설문분석 |
| II. 연구의 범위와 방법 | IV. 요약 및 결론 |

I. 서 언

환경보전 기능과 안전농산물 생산 기능을 수행하는 유기농업은 개방화시대에 외국 수입농산물로부터 우리 농업을 지켜내고 이로서 우리의 국토를 토양오염과 수질오염으로부터 지켜내며 안전식품을 생산하는 지역사회와 국민의 사랑을 받는 환경보전 산업으로 자리매김을 해 나가고 있다.

친환경 유기농업이 활발히 전개되어야 우리의 「상수원」과 먹거리인 「식품」의 안전성을 지킬 수 있다면 과연 지역사회가 이를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시민운동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으며, 장차 21세기에는 그 실천대상이 되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고는 유기농업발전을 위한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방안을 강구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친환경 유기농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한국인의 환경의식, 유기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에 대한 인식정도 그리고 친환경농업에 대한 참여의식 분석등을 실시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본 조사연구는 현대농업의 문제점, 유기농업의 필요성등을 살펴보고, 유기농업 발전을 위한 주민참여 방안 등에 관한 내용을 방문 및 설문조사하여 시민들의 유기농업이 환경보전 기능에 대한 인식도 조사와 주민참여 방안에 대한 참여의사 등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II. 연구의 범위와 방법

유기농업 발전을 위한 주민참여 분석을 위해 2000년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제주도를 제외한 8개도(각도관내의 특별시·광역시까지 포함)의 유기농업 생산자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표본의 특성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환경관련인지도, 환경의식 실태, 유기농업의 환경보전과 안전농산물 생산 기능에 대한 인식정도, 유기농업에 대한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의식과 방안등에 관하여 25개 문항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우리나라 유기농업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 CSA운동의 방안과 전략수립을 모색하고 그 기초자료를 얻기 위해 2000년 4월 15일부터 6월 15일 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제

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주부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접방문 및 개인설문인터뷰의 형태로 실시하였는바 그 설문조사의 주요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사연구범위 및 내용

구 분	문항수	설 문 내 용	비고(%)
계	25		100
표본의 특성에 관한 사항	6	- 결혼/연령/학력/직업/소득 영농분야/실천경험	24
환경관련인지도	3	- 농촌환경에 대한 현실인식 정도 (자연환경상태/오염정도/생활환경) - 환경관련 정보습득 방법/교육경험	12
환경의식실태	4	- 환경관련 상식정도 - 농업환경오염의 실태 파악정도 - 친환경 농업 필요성 인식정도	16
유기농업의 환경보전과 안전농산물 생산기능에 대한 인식정도	5	- 환경보전 기능 (대 상수원 및 토양오염) - 안전농산물 생산 기능 (잔류농약, 중금속, 질산염, 생장조절제)	20
유기농업에 대한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의식과 방안	7	- 제도적 측면 - 주민의식 측면(공동체의식) - 퇴비제조작업 - 재배관리 - 수확작업 - 판매/소비/유통	28

1. 표출방법

본 설문 조사에서는 집락표출(cluster sampling) 방법을 사용하여 전국의 유기농업 실시 농가(생산자)와 유기농산물을 구입하고 있거나 구입을 희망하는 소비자 단체 회원(소비자)들 중에서 유기농업 실천기술이나 소비자 계도교육에 참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논문의 취지를 설명한 후 무작위로 절반정도의 참석자들을 표본대상자로 선정하여 설문조사하였다.

2. 자료수집과 분석

현지조사는 사례 및 실태조사를 위하여 질문지를 사용한 직접 대면조사와 집합조사의 방법으로 실시되었다.

특히 질문서의 타당성과 난이도 및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2000년 2월 1일부터 15일까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소재 하나아파트 주부들을 대상으로 2일간에 걸쳐 사전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한 후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설문조사는 우리나라 유기농업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 CSA운동의 방안과 전략수립을 모색하고 그 기초자료를 얻기 위해 2000년 4월 15일부터 6월 15일 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농민 생산자와 주부 및 청소년을 포함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방문 및 개인설문인터뷰의 형태로 실시되었다.

조사요원은 1지역당 사전교육을 받은 책임조사원 1명과 현지에 거주하는 1명의 보조조사원 등 2명으로 구성되었다.

총 표본수는 400개로 생산자, 소비자 각각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으며, 응답율은 75%였으나 유효한 표본은 292개로 73%만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MSTAT 2.0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후 표를 작성하였다.

III. 유기농업발전을 위한 주민의식과 참여방안 설문분석

조사대상자들은 결혼한(생산자 96.5%, 소비자 93.8%) 41세 이상 60세 이하의 중장년층(생산자 76.5%, 소비자 70.6%)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학력은 중졸이상의 비교적 높은 수준(생산자 68.7%, 소비자 84.2%)이었고, 직업은 생산자의 경우 경종농가가 대부분(86.%)을 차지한 반면 소비자는 주부(68.4%)와 직장여성(18.6%)으로 대별되었다.

소득수준은 연간 2천5백만원 정도의 저소득층(생산자 36.5%, 소비자 48%)이 많았으며, 유기농법을 전혀 시도해보지 않았던 응답자는 생산자(14.8%)보다 소비자(58.8%)가 월등히 많아 특히 중년층 주들을 대상으로 한 계도활동에 주력해야할 필요성을 크게 느낄 수 있었다.

1. 환경의식 실태

1) 거주지역 자연생태계에 대한 인식

조사 대상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자연생태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자신의 거주지역의 자연생태계가 다소 파괴되어 있다고 인식하는 사람이 전체 조사대상자의 1/3을 넘었다. 또한 대단히 많이 파괴되어 있다고 답변한 사람이 생산자의 12.3%, 소비자의 11.5%에 해당되어 다소 파괴되어 있다고 응답한 사람과 합하면 전체 응답자의 49% 이상이 거주지역의 자연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볼 때 우리나라 자연환경의 손상 정도가 이미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2) 자연생태계의 파괴 이유

자연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이유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생산자와 소비자간에 생태계 파괴 이유에 대한 의견이 약간 상이하였다. 생산자의 경우 전체 조사자의 55.6%가 농약류의 남용에 의한 것이라고 답변한 것에 반하여, 소비자의 경우는 농약류의 남용에 의한 것이라는 의견은 32%이고, 전체 응답자의 57.7%가 산업폐수 및 생활하수 무단방류에 의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이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거주지역인 농촌과 도시지역에 따른 자연생태계와 생활 환경의 차이에 의한 것이라 생각되어진다.

3) 거주지역의 수질, 토양오염에 대한 인식

거주지역의 수질과 토양오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조사한 것을 살펴보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보통의 상태이다가 생산 27.8%, 소비자 24.4%이고, 다소 파괴되어 있다고 답변한 것이 생산자 39.2%, 소비자 45.5%로 오염이 어느정도 진행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 잘 지켜지고 있다고 답변한 사람이 생산자 24.3%, 소비자 14.8%인 것에 반하여 파괴되어 있다고 답변한 사람이 생산자 47.9%, 소비자 60.8%로 생산자, 소비자 모두 자신의 거주지역의 수질과 토양이 오염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생산자 측에 비해 소비자 측에서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수질과 토양오염이 되어 있다고 조사된 것은 거주지역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생산자 측이 거의 모두 농촌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소비자의 대부분은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다. 따라서 농촌 지역보다 도시 지역의 환경오염이 더 심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4) 거주지역의 수질, 토양, 지하수 오염의 원인

거주지역의 수질,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되고 있는 주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조사의 결과를 보면,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 생산자 측은 오염의 주원인을 영농화학물질의 남용(58.4%)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으로 생활하수 무단방류(23.9%)로 꼽고 있는 반면에, 소비자 측에서는 생활하수의 무단방류(63.4%)를 주원인으로 꼽고 그 다음으로 영농화학물질의 남용(21.8%)을 꼽고 있다.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생산자와 소비자의 거주환경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생산자 측은 주 직업이 경종농업 종사자로서 영농화학물질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강한 편이다. 이에 반하여 소비자 측은 대부분 도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부들로서 영농화학물질의 문제보다는 생활하수의 문제에 더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생활하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거주와 생활 환경의 차이가 이러한 인식 차이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2. 환경에 대한 인지도

1) 자연생태계 희생과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한 실천 및 계도활동 참여 여부

자연생태계의 희생과 거주지역 환경(수질, 토양, 지하수 등)의 오염방지를 위한 실천이나 계도활동을 하여 왔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생산자의 경우 시도해 보았다는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80.9%로 대부분의 응답자가 적극적으로든 소극적이로든 이러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해왔다고 답변하였다.

이와 비교하여 소비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노력을 해왔다고 답변한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52%로 나타나 생산자 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 소비자는 아직도 자연생태계 희생이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활동에 대한 관심도가 생산자에 비해 낮은 편이며 CSA운동의 전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대상자는 약 절반에 불과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2) 자연생태계 보호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최선책

자신의 거주지역의 자연생태계의 보호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책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보면, 생산자의 경우 친환경유기농·축산업이나 친환경농산물 애용을 적극 실천하는 것(40.6%), 각종 오염행위에 대한 법률적 규제 강화와 이를 철저히 집행(26.2%),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오염방지를 생활화하도록 계도활동을 실시(17.1%), 공장, 축산폐수, 생활하수 정화시설을 확충하여 완전정화후 방류(12.3%), 기타 (3.6%)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소비자 측에서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오염방지를 생활화하도록 계도활동을 실시(37.2%), 각종 오염행위에 대한 법률적 규제 강화와 이를 철저히 집행(29.7%), 공장, 축산폐수, 생활하수 정화시설을 확충하여 완전정화후 방류(22.1%), 친환경유기농·축산업이나 친환경농산물 애용을 적극 실천하는 것(11.0%)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 소비자는 유기농업에 대한 의의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유기농산물의 소비 선택이 자연생태계 보호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선택이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소비자는 불과 11%에 불과하였다는 것은 장차 한국에서 CSA운동이 전개될 때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유기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의 홍보에 역점을 두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환경오염 해소를 위한 친환경 유기농업 도입이나 친환경 농산물 애용운동의 필요성

거주지역의 환경오염 해소를 위해 친환경 유기농업의 도입(생산자의 경우)과 친환경농산물 애용운동의 실천(소비자의 경우)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살펴보면, 생산자의 경우 환경오염 해소를 위해 친환경 유기농업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100%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의 경우에도 지역의 환경오염 해소를 위해 친환경 농산물의 애용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한 사람의 전체 응답자의 96.6%로 나타났다. 다행스럽게도 이처럼 생산자, 소비자 모두 친환경 유기농업의 도입과 친환경농산물의 애용이 필요하다는데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유기농업에 대한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의식과 방안

1) 친환경 유기농업 또는 친환경농산물 애용의 지속적 실천여부와 그 이유

친환경 유기농업 또는 친환경농산물의 애용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는가에 대한 답변을 보면 생산자, 소비자 모두 실천하겠다고 답변하고 있다. 실천할 의사가 없거나 (생산자 4.3%(5명)) 관심이 없다고 답변한 사람(생산자 0.9%(1명), 소비자 0.6%(1명))을 제외하면, 생산자의 경우 94.7%, 소비자의 경우 99.4%로 거의 모든 응답자들이 이러한 친환경 유기농업의 실천이나 친환경농산물의 애용운동에 동참하겠다고 답변하고 있다.

이처럼 친환경 유기농업 또는 친환경농산물의 애용에 동참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 친환경 유기농업 또는 친환경농산물을 애용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생산자, 소비자 모두 자신은 물론 후손의 건강증진에 필수조건이기 때문(생산자 50.5%, 소비자 49.7%)이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자연생태계 보호와 환경보존이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에 동참하겠다고 답변한 사람도 생산자 40.4%, 소비자 44.6%로 많은 수를 차지한 것으로 볼 때 많은 국민들이 자연환경보호와 후손들의 건강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2) 친환경 유기농업 실천 또는 친환경농산물 애용을 이웃에게 권유 여부와 이유

친환경유기농업 또는 친환경농산물 애용운동을 이웃에게 권유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적극 권유하겠다고 생산자 57.4%, 소비자 52.5%이고 가능한 권유하겠다고 생산자 36.5%, 소비자 43.5%로 나타나 응답자의 대부분이 이웃에 권유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생산자 93.9%, 소비자 96.0%).

또한 이처럼 이웃에게 권유하고자 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에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환경보전이 우리모두의 의무이기 때문(생산자 41.7%, 소비자 49.1%)에 권유하고자 한다고 답변하여 권유하고자 하는 최대 이유가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외에 답변을 보면 생산자의 경우 친환경농산물의 애용이 결국 지역환경개선의 지름길이기 때문(25.0%), WTO에 대응하여 우리농업을 살리는 길이기(13.9%), 친환경농산물의 애용이 본인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기 때문(13.0%), 농가소득 증대에도 큰 기여가 있기 때문(6.5%)의 순으로 나타났고, 소비자의 경우에는 친환경농산물의 애용이 본인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기 때문(19.5%), 친환경농산물의 애용이 결국 지역환경개선의 지름길이기 때문(17.8%), WTO에 대응하여 우리농업을 살리는 길이기(8.3%), 농가소득 증대에도 큰 기여가 있기 때문(5.3%)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생산·소비자 공히 유기농업의 실천과 친환경농산물의 애용이 지역환경의 보존과 개선을 위한 지름길이며 본인의 건강에도 가장 유익한 일이라는 것과 WTO에 대응하여 우리농업을 살려나갈 수 있는 최선의 길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다.

4. 유기농업 지원의식과 방안

1) 친환경 유기농업을 정착시키기 위한 정부와 농협의 가장 바람직한 지원형태

친환경 유기농업을 정착시키기 위한 정부와 농협의 지원 형태 중 가장 바람직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살펴보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의견이 완전히 일치하였다.

지원형태 중에 바람직하다고 평가한 순서대로 정리해보면 유기농업기술과 친환경농산물 애용의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 교육(생산자 40.0%, 소비자 57.6%),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한 저리자금 지원(생산자 22.6%, 소비자 19.4%), 도시의 농협 수퍼를 통한 유기농산물 직판 및 외국수출 노력(생산 20.0%, 소비자 13.9%), 친환경유기농업자재 저가구입 알선(생산자 15.7%, 소비자 9.1%), 기타(생산자 1.7%, 소비자 0%)의 순인 것으로 보아 이는 정부측의 의지 여하에 따른 자금지원규모에 자우될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보인다.

2) 친환경 유기농업을 정착시키기 위한 지역주민의 가장 바람직한 역할

친환경 유기농업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지역주민들의 가장 바람직한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가장 바람직한 역할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선택한 것은 친환경 유기농업 기술 또는 친환경농산물 애용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고 적극 실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의견으로써 생산자의 51.3%, 소비자의 49.7%가 이 항목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대답해 과반수 정도가 실천적인 참여와 노력이 중요함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외에 항목을 살펴보면 생산자의 경우에는 선진국의 환경시범마을이나 생태마을 등의 성공사례를 도입해 종합적 친환경 청정지역 조성을 위한 공동 노력을 경주한다(21.2%), 집단화된 친환경 유기농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관광산업으로 육성토록 노력한다(14.2%),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적극 참여한다(11.5%), 기타(1.8%)의 순이었다.

소비자의 경우에는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적극 참여한다(29.7%), 선진국의 환경 시범마을이나 생태마을 등의 성공사례를 도입해 종합적 친환경 청정지역 조성을 위한 공동 노력을 경주한다(13.3%), 집단화된 친환경 유기농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관광산업으로 육성토록 노력한다(7.3%)의 순으로 나타났다.

3) 시민들에게 지원받는 유기농업이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홍보해야 할 사항

유기농업 실천에 따른 기대효과로써는 어떠한 내용을 가장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시민들로부터 지원받는 유기농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생산자와 소비자의 의견이 일치하였다.

안전 농산물 생산 공급으로 인한 건강 증진 효과(생산자 65.2%, 소비자 45.5%), 수질보전으로 깨끗하고 맑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효과(생산자 18.3%, 소비자 40.7%), 생태계와 생물종 다양성 보전 효과(생산자 8.7%, 소비자 7.8%), 토양오염 저감 효과(생산자 6.1%, 소비자 6.0%), 기타(생산자 1.7%, 소비자 0%)의 순으로 나타나 생산자 소비자 모두 가장 적극적으로 홍보해야할 유기농업의 기대효과로 안전농산물 생산 공급으로 인한 건강 증진 효과를 꼽고 있다.

4) 생태계 보전과 관련한 평소의 실천행동

수질과 토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생태계 보전과 관련하여 생산자인 유기농업 실천독농가에게는 “평소에 화학비료·농약을 살포하거나 축산폐수 등을 무단방류할 때 어느 정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가?”를, 소비자에게는 “평소에 생활하수, 오폐수 등을 무단방류할 때 어느 정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가?”를 질문한 답변에서, 생산자의 경우 매우 많이 느꼈다가 60.9%, 약간 느꼈다가 28.2%로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이 전체의 89.1%로 나타났으며, 소비자의 경우는 매우 많이 느꼈다가 53.0%, 약간 느꼈다가 36.8%로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이 전체의 89.8%로 대부분의 국민이 평소의 생활속에서 잘못을 인식하면서도 환경과 파괴 행위를 자주 자행하여 왔음을 나타내고 있다.

5) 유기농업의 첨단기술개발 연구 및 교육

유기농업의 첨단기술개발 연구 및 교육과 관련하여 생산자에게는 “유기농업 현장에서 느끼는 토양진단 최적퇴비시비기술, 유기농법적 잡초방제 등과 같은 애로기술에 대한 기술개발과 액비, 고급유기질비료, 미생물농약, 저항성 품종 등 유기농업용 영농자재의 개발이 유기농업의 활성화에 얼마나 필요한가?”에 대하여 질문하였고, 소비자에게는 “우리나라 농과계 고등학교나 대학에 선진농업국에서와 같이 친환경농업, 유기농업, 생태마을, 생태계보전 관련 교과목의 설치가 필요한가?”에 대하여 질문하여 답변에서, 생산자는 절대로 필요하다는 80.7%, 다소 필요하다는 16.7%로서 전체 응답자의 97.4%가 유기농업 애로기술의 개발 및 유기농업용 영농자재 개발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소비자의 경우도 절대로 필요하다는 82.4%, 다소 필요하다는 15.8%로 전체 응답자의 98.2%가 농업계 고등학교와 대학에 환경농업 관련 교과목의 개설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농학계 고등교육기관에서는 독일의 농업계 고등학교와 농과대학에서 유기농업, 환경농업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고 유기농업학과를 설치하여 연구와 교육에 정진하고 있음에 유의하여야겠다.

장차 우리나라에서도 유럽과 같은 유기농업 교육이 농과대학과 농업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 친환경유기농업의 생산자 조직강화 및 친환경농산물 애용운동 활성화

친환경유기농업의 생산자 조직강화 및 친환경농산물 애용운동 활성화와 관련하여 생산자에게는 “유기농업의 활성화와 조직강화를 위해 관련농민단체 가입 및 협회비의 자진납부, 적극적 지회활동이 필요한가?”에 대하여 질문하고, 소비자에게는 “유기농산물 애용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깨끗한 물과 유기농업“, ”환경보전과 유기농업“ 등의 홍보물 발간 배포와 소비자제도 교육이 필요한가?”에 대하여 질문하여 얻는 답변에서, 생산자는 절대 필요하다고 62.6%, 다소 필요하다고 34.8%로 전체 응답자의 97.4%가 이러한 활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소비자의 경우도 이러한 활동이 절대 필요하다고 75.9%, 다소 필요하다고 23.5%로서 전체 응답자의 99.4%가 이러한 활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정부는 물론 생산자나 소비자 단체들의 적극적인 제도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7) 지역사회가 지원하는 농업(CSA)이 우리나라에서 전개될 것과 관련한 인식 조사

지역사회가 지원하는 농업(CSA)이 우리나라에서 전개될 것과 관련하여 생산자인 유기독농가에게는 “CSA회원이 모집되어 귀하의 농장을 CSA운동의 회원농장으로 참여받기를 권유받는다면 이에 적극 참여하겠습니까?”라는 질문을, 소비자에게는 “CSA회원을 모집하는 CSA운동단체가 있어 참여하기를 권유받는다면 이에 회원으로 참여하겠습니까?”라는 질문을 하여 이에 대한 답변에서, 생산자의 경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57.9%, 경우에 따라 참여하겠다고 38.6%로 전체 응답자의 96.5%가 참여의사를 밝혔으며, 소비자의 경우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35.8%, 경우에 따라 참여하겠다고 57.6%로 전체 응답자의 93.4%가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다.

다만 생산자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답변이 과반수 이상인 것에 반하여 소비자의 경우는 경우에 따라 참여하겠다고 과반수를 넘어 소비자의 경우가 아직 CSA운동에 대한 인식부족과 참여의식 부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소비자 대상의 참여제도 활동이 전개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8) CSA운동과 CSA농장에 대한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인터넷에 CSA(지역사회가 지원하는 농업)운동과 CSA농장에 관한 정보를 담은 자료를 장차 게재하는 것과 관련하여 생산자에게는 “만약 외부로부터 기술적 재정적 후원이 뒷받침될 경우, 인터넷에 귀하의 농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를 만들 의향이 있는가?”에 대하여, 소비자에게는 “CSA운동과 관련하여 CSA운동, CSA농장에 관한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운영된다면 이를 검색하여 이용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하여 질문하여 얻은 답변에서, 생산자의 경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58.8%, 경우에 따라 참여하겠다고 36.8%로 전체 응답자의 95.6%가 참여의사를 밝혔으며, 소비자의 경우도 적극적으로 방문하겠다고 42.0%, 경우에 따라 방문하겠다고 51.5%로 전체 응답자의 93.5%가 홈페이지 이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아 홈페이지 개설방법과 운영요령을 적극 지도하고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다.

이상의 설문분석결과와 같이, 농촌과 도시를 망라한 자연환경과 생태계가 국민 모두의 피

부에 와 닿을만큼 현저하게 파괴되고 있으며, 그 이유는 양심의 가책을 거의 느끼지 않는 무의식중에 습관화된 영농화학물질의 남용과 산업폐수 및 생활하수의 무단방류등에 기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에 생산·소비자를 포함한 국민모두는 아직까지도 오염이 심화 되어가는 자연환경을 회생시켜내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별로 기울이지 않고 있어,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시민단체들의 계도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연환경보호운동의 성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농민의 친환경 유기농업 실천과 소비자의 유기재배 등 친환경 농산물 애용이 최선의 대안임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농협은 유기농업기술과 친환경농산물애용의 필요성에 대한 계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면서 친환경농산물의 유통활성화를 위한 저리자금지원과 농협 슈퍼등을 통한 유기농산물직판노력과 함께 유기농자재의 저가구입알선 등의 복합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생산·소비자 교육시에 중점적으로 강조해 나가야 할 관심사항으로는 안전농산물의 생산과 공급에 따르는 건강증진효과와 수질보전으로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장점, 생태계와 생물종다양성을 보전시켜 나갈 수 있고 토양오염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점들을 강조하여 주지시켜 나가는 것이 교육효과를 가장 극대화 시켜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모든 농민들에게 친환경유기농업을 보급시켜나가면서 소비자들의 의식을 개혁시키기 위해서는, 유기농업에 필요한 첨단기술을 연구개발하고,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유기농업과목을 설치해야 된다는 의견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행노력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유기농업을 실천하고자 하는 농민들을 지역별로 조직화하여 체계적인 기술·정보의 제공과 생산한 유기농산물의 유통지도등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나가야 하겠으며, 소비자들을 계도해 나가기 위해서도 각급 교육외에 다양한 홍보 매체들을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노력의 열매로 「지역사회가 지원하는 농업」(CSA)이 다양한 형태로 조직될 경우에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과 함께 지속적인 참여와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지도와 관리가 이루어질 경우 상당한 실적이 거양될 것으로 확신한다.

IV. 요약 및 결론

본고는 “지역사회가 지원하는 농업”인 「CSA운동」에 초점을 맞추어 선진국의 CSA운동의 유형과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유기농업과 환경인식 및 CSA운동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우리나라 유기농업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 CSA운동의 방안과 전략수립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얻는데 목적을 두고 작성되었다.

유기농법으로 재배된 농산물에 대한 재배과정 신뢰도가 아직도 높지 않으므로 품질인증 유기농산물의 시장유통촉진과 더불어 생산자-소비자간의 일본형 산·소 직거래운동과, 생산자-소비자간의 계약재배에 근거하는 미국형 CSA운동단체를 조직하는 것이 현재의 우리나라 유기농산물의 생산과 소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적합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설문조사 결과, 자연환경의 파괴의 원인으로 농약남용이 꼽혔으며, 수질오염과 토양오염의 원인으로 생산자는 영농화학물질을, 소비자는 생활하수 무단방류를 가장 많이 지적했다. 생

태계 보호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는 농민들은 유기농업을 실천하고 유기농산물 애용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믿고 있었으며, 유기농산물의 소비가 환경보전과 생태계 보호를 위한 수단이며 소비자 자신과 후손의 건강증진을 위해 바람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생산자와 소비자의 공통된 인식이었다.

또한 생산자, 소비자 모두가 유기농업용 기술개발과 친환경 영농자재의 개발 필요성 및 농과대학에서의 유기농업 교과목 개설이 절대 필요하다는 응답이었다.

유기농산물 애용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소비자 계도의 필요성이 절대 필요하다는 응답과 CSA운동의 농장주와 회원으로 참여하겠다는 응답도 대단히 높았다. CSA농장에 대한 홈페이지 개설과 Website방문에 대해서도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적극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참 고 문 헌

- 경실련, 「우리 나라 환경농업의 과제와 정책방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농업개혁위원회, 1998.
- 김연화 외, 「생명의 먹거리, 유기농산물소비의 현황과 전망」, 한국소비생활연구원, 1999.
- 김연화 외, “유기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의식구조”, 「한국유기농업학회지」 8(1), 1999.
- 농림부, 「친환경농업 육성정책」, 농림부, 1998.
- 김호 외, 「유기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사례연구」, 사단법인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1994.
- 김호 외, 「환경농업 및 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방안 정책토론회」, 한국농어민신문, 1998.
- 농촌청소년문화연구소, 「농촌지역의 환경오염 실태와 보전대책에 관한 주민의식 조사연구」, 한국4-H연맹 부설 농촌청소년문화연구소, 1998.
- 농협중앙회, 「농협의 친환경농업 추진현황 및 2000년 계획」, 농협중앙회, 2000.
- 손상목, “주요 유럽 농업선진국들의 환경보전형 지속농업실태와 한국의 접근과제”, 「국제농업개발학회지」 7권, 1995.
- 손상목 외, “국제 유기농업 기본규약과 한국 유기농업 실천기술의 비교분석연구”, 「한국유기농업학회지」 4(2), 1995.
- 손상목 외, “한국환경농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기술적 및 정책적 접근과제”, 「한국 유기농업학회지」 5(2), 1997.7
- 송상용 외, 「친환경농업 발전전략 심포지엄」, 농림부, 1999.
- 오세익 외, 「환경보전과 농업 발전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3.
- 유정규 외, 「환경농업과 지역농업에 관한 심포지엄」, 동국대학교, 1998.
- 전태갑, 「친환경농업 육성방안 연구」, 전남대학교, 2000.
- 정길생 외, “선진 유럽유기농업의 환경보전적 기능과 안전농산물 생산”, 「한국 유기농업학회지」 5(1), 1996.
- 정진영 외, 「친환경농업과 국민건강」, 식생활개선국민운동본부, 1999.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0년 친환경농업육성정책」, 농림부, 2000.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유통활성화 방안」, 농림부, 2000.
-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환경농업육성지원법 백서」, 환경농업단체연합회, 1996.